



광주대-광주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논의

광주대학교는 지난 3일 학교 한국어교육과 실습실에서 광주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 교류 및 협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지난달 양 기관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인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대 백지환 교수, 김윤희 교수, 광주외국인주민센터 문정아 팀장이 참석해 한국어·외국인 주민 간 친선 축구대회를 비롯해 RISE와 관련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협력 모델 구축, 외국인 유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주민 정주 지원 방안, 유학생 체류 활동,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교통공사, 지반 침하 대비 특별점검

광주교통공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및 주변 시설물 특별 점검을 펼치는 등 도시철도 이용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사진)

공사는 최근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의 구조물과 인근 지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역사 외부 환기구 내 토사·우수 유입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7일에는 조익문 사장이 직접 송정공원역, 운천역, 금남로5가역 등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의 시설물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 결과 역사 환기구, 외부 엘리베이터 등 지반 침하와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는 향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역 인근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조선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인기

조선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을 2배로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사진)

지난 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안전과 조기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과 병동지원인력이 입원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제도이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과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문객을 제한해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국가건강보험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조선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지난해 기존 21병상에서 두 배 수준인 41병상으로 늘리면서 병동 일부 운영에서 전체로 확대했으며, 약 40명의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인구 인식개선 캠페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인구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사진)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이어가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병규 청장은 "인구문제는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니다"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아이와 청년, 노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젊은 도시 광산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산구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여성·아이 공동체 공간 '모아모아행복센터' 운영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와 △다자녀출생축하금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선물 전달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지난 4일 (사)굿피플 광주전남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동백꽃 선물함' 1300박스를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

'동백꽃 선물함'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위생용품 등의 물품들로 구성됐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은 "굿피플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여성용품 하나하나에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온 마음이 핑크빛으로 물들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중심에 둔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앞으로도 아동 중심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무안경찰, 봄철 교통사고 예방 단속·홍보

무안경찰은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지난 7일부터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주간 불시 단속과 사고 다발지역 집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까지는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무안 해제면 도리포에서 열리는 유채꽃 축제 등 지역 행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과 농촌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 보행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형광 반사조끼 부착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부소방,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봄철 건조기 산불 대비 의용소방대원 예찰활동 및 산악사고 안전대책 일환으로 지난 5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산악안전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라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 등을 통해 산불예방과 대시민 안전산행을 유도하고자 무등산 생태탐방원, 관내 산림인접마을 등에서 실시됐다.

주요내용은 △관내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 예찰활동 △화재 위험요인 사전제거 △시민대상 산불 예방홍보 캠페인 실시 △안전산행을 위한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채덕현 북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전현무, '보아와 취중 라방' 사과... "박나래에 미안"

방송인 전현무(사진)가 가수 보아와 취중 상태에서 진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 대해 사과했다.

전현무는 9일 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토요일 라이브 방송과 관련한 저희 공식적인 사과가 늦어졌다"며 "이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전했다.

전현무와 보아는 지난 5일 진행한 방송에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박나래에게 실례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 중 한 시청자가 전현무에게 박나래와의 교제설에 관해 묻자 보아는 "사귀지 않을 것 같다. 오빠(전현무)가 아깝다"고 답했고, 전현무는 "괜찮겠어

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라고 되물어 뒷말을 낚았다.

전현무는 "라이브 직후 공연히 언급된 나래에게는 방송 직후 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나래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또 그 전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모두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황민우·황민호, 노량진 수산시장 버스킹

트로트 가수 황민호가 형 황민우와 함께 수산시장에서 버스킹을 한다.

9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나에게 넌 기적이야' 편으로 꾸며진다.

황민호·민우는 부친 생일상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으로 향한다.

두 사람의 등장에 시장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상인들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팬 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민호야 내가 네 팬이야"라며 팬심을 고백하자 형제는 수산시장 한가운데서 무대를 꾸민다.

갑작스러운 라이브 요청에도 형제는 '진포배기'부터 '자갈치 아지매'까지



황민우 황민호

열창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황민호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대로 뛰어든 상인들과 함께 합을 맞춘 댄스를 선보였다.

또 '재간둥이 댄스', '사랑의 총알'로 노량진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형제의 무대에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뉴시스